

漁家所得分布에 關한 調查研究

Survey on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shing Households in Korea

李 康 雨*
Kang Woo Lee

目 次

I. 序 論	2. 漁業收支
1. 研究目的	3. 漁家の 所得
2. 研究範圍	4. 諸指標의 韓·日間 比較
3. 研究方法	5. 諸指標의 産業間 比較
4. 調査對象 地域 및 調査期間	6. 主要指標間의 相關度
II. 島嶼概況	IV. 結 論
1. 島嶼의 人口變動 趨勢	參考文獻
2. 島嶼漁家 戶當所得 趨勢	附錄 調査票
III. 主要指標 分析	Summary
1. 漁船勢力 및 漁業從事 世帶員 分布	

I. 序 論

1. 研究目的

現在 우리나라의 漁業現況을 살펴보면, 200海里時代의 本格的인 到來로 말미암아 새로운 遠洋漁場의 開發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周邊水域의 水産資源의 開發 및 增養殖의 推進, 새로운 沿岸漁業構造 改善事業, 漁業經營 安定對策의 推進 등 沿岸漁業의 育成策이 매우 時急한 實情이다.

이와 같은 海低資源開發 時期를 맞이하여 本研究는 海洋開發을 위한 前哨의 機能을 갖고 있는 새로운 寶庫의 場인 島嶼의 漁家를 對象으로 漁家家口의 所得分布, 家計費, 漁船勢力, 世帶員의 狀況 등을 分析함으로써 漁業經營體의 實體를 把握하여 漁家所得 向上을 위한 對策을 考察함과 동시에 漁業經營의 育成策 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範圍

海面漁業을 自營하고 있는 島嶼의 個人經營體중에서, 使用하고 있는 動力漁船의 合計 Ton數가 10Ton 未滿에 該當되는 一般海面 漁業經營體와 使用하는 動力漁船의 合計 Ton數가 10Ton 未滿인 淺海養殖漁業 經營體로 하였다. 단, 無動力船 및 漁船을 使用하지 않는 漁業經營體는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釜山水産大學 水産經營學科 專任講師.

3. 研究方法

10Ton 未滿의 漁船漁業漁家를 動力船 Ton數를 基準으로 3個의 階層으로 나누어 設問紙에 의한 面接調查를 實施하여 調査者가 直接 記帳케 하였으며 集計는 電算機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階層 및 調査事項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階層區分：

- (1) 1Ton 以上~ 3Ton 未滿
- (2) 3Ton 以上~ 5Ton 未滿
- (3) 5Ton 以上~10Ton 未滿

調査事項：

- (1) 概況：世帶員 및 漁船狀況, 養殖 및 農業耕地面積 등
- (2) 操業狀況：漁業勞動 狀況, 生産量
- (3) 收支狀況：漁業收支 및 支出, 漁業外事業 收入 및 支出(水産加工業, 農業, 기타), 事業外 收入 및 支出(負債利子, 租稅, 家計費 總額)
- (4) 家計費：飲食費, 被服費, 光熱費 등

4. 調査對象地域 및 調査期間

- (1) 調査對象地域：육지도(경남), 거문도, 청산도, 금오도, 흑산도, 다물도(전남), 제주도
- (2) 調査基準期間：1981年 1月 1일부터 1981年 12月 31일까지(1年間)
- (3) 調査日時：① 1982年 5月 3日~1982年 5月 8日
② 1982年 5月24日~1982年 5月29日
- (4) 調査者：釜山水産大學 水産經營學科 3·4學年 學生

II. 島嶼概況

1. 島嶼의 人口變動 趨勢

1) 時系列別 人口變動 趨勢

全國人口와 島嶼人口²⁾의 時系列別 人口推移의 傾向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 1975年의 人口를 基準으로 指數化한 圖表가 <그림·1>이다.

<그림·1>로부터 全國의 人口는 漸進的으로 增加하는데 反하여 島嶼人口는 특히 近年에 와서 急激하게 減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島嶼의 人口가 急速度로 下降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은 出生率과 死亡率의 差異라기 보다는 島嶼民의 離島率이 매년 增加하는 데에 그 原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附錄의 調査票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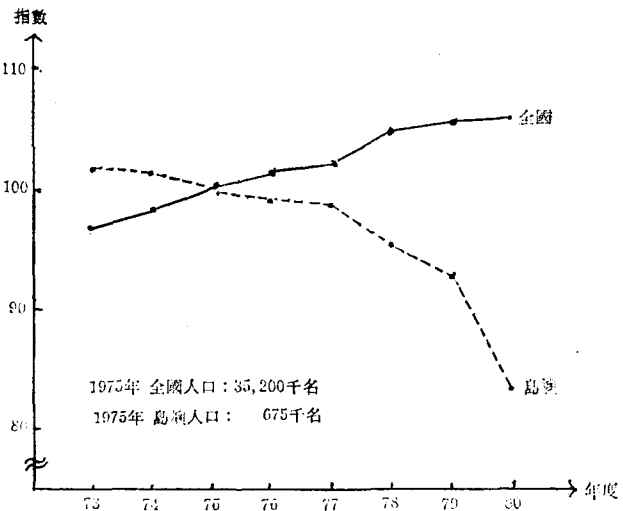
2) 內務部, 島嶼·落島現況, 1981, p. 11.

漁家所得分布에 관한 調査研究

2) 年齡別 人口分布

〈그림·1〉 年度別 人口變動趨勢(1975年 基準)

1980年의 全國人口³⁾와 島嶼人口⁴⁾의 年齡別·性別 構成比를 表示한 것이 〈表·1〉이다. 〈表·1〉로부터 全國과 島嶼의 年齡別 人口分布를 살펴보면 20歲以下의 경우는 그 構成比에 있어 別로 差異가 없으나 勞動力의 中心層이라 할 수 있는 21~50歲의 경우는 全國 및 島嶼의 構成比가 각각 40.59%와 33.72%로서 현저하게 島嶼人口의 構成比가 減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1歲以上の 老齡層에 대해서는 島嶼의 人口分布가 全國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많이 分布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の 結果로 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島嶼地方이 都市보다 高齡化時代에 먼저 突入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으며 또한 島嶼地方의 勞動力 不足現象을 잘 說明해 주고 있다.

〈表·1〉 年齡別 人口分布(1980年度 基準) (단위: %)

年齡別		14歲以下	15~20歲	21~50歲	51~60歲	61歲以上
全國	男(18,746,000)	35.20	13.79	40.67	5.87	4.47
	女(18,672,000)	32.75	12.96	40.52	6.83	6.89
	計(37,418,000)	33.98	13.38	40.59	6.37	5.63
島嶼	男(281,000)	34.22	13.48	34.24	10.45	7.61
	女(282,000)	33.96	12.77	33.20	10.97	9.10
	計(563,000)	34.09	13.12	33.72	10.71	8.36

註: ()內는 1980年度 人口를 표시함.

2. 島嶼漁家 戶當所得 趨勢

우리나라의 島嶼漁家⁵⁾·農家·都市勤勞者⁶⁾의 時系列別 戶當所得(實質所得 基準) 隔差를 살펴보면 〈表·2〉 및 〈그림·2〉參照) 다음과 같다.

島嶼漁家の 戶當所得은 1977年以前까지는 都市勤勞者 및 農家の 戶當所得에 비해 比較的 높았으나 1977年以後 가장 下位로 轉落됨과 同時에 점차로 그 所得隔差가 深化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

3)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한국통계연감, 1981, pp. 42~43.

4) 內務部, 島嶼·落島現況, 1981, pp. 76~77.

5) 全羅南道, 道政白書, 1981, p. 12.

6)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前揭書, p. 67.

〈表·2〉 家口別·時系列別 戶當所得 趨勢
(實質所得) (단위: 千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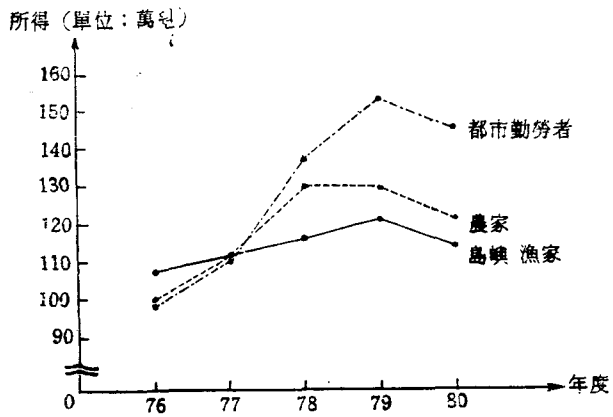
年度	76	77	78	79	80
區分					
島嶼漁家	1,070	1,120	1,160	1,210	1,140
農家	1,002	1,126	1,295	1,297	1,219
都市勤勞者	998	1,105	1,371	1,531	1,448

다(단, 實質所得은 서울消費者 物價指數를 基準으로 환산하였음). 이 중에서도 특히 1977년부터 1979年 사이에 漁家와 都市勤勞者의 戶當所得 隔差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2〉에 의하면 1979年 以前에는 島嶼漁家·農家·都市勤勞者의 實質所得이 多少 그 增加率에 差異는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增加趨勢를 보여주고 있었으나 1979年에서 1980年 사이에서는 모두 減少했다는 사실을 잘 反映해 주고 있다. 여기서 1976년부터 1979年까지 島嶼漁家의 實質所得은 農家 및 都市勤勞者에 비해 增加率이 매우 낮음에 비해 1979年以後 戶當所得 減少率의 差는 거의 無視할 정도이다.

따라서 島嶼漁家의 實質所得의 向上은 農家 및 都市勤勞者의 戶當所得의 向上에 비해 크게 떨어진 狀態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家口別·時系列別 戶當所得 趨勢



Ⅱ. 主要指標 分析

1. 漁船勢力 및 漁業從事 世帶員 分布

(1) 漁船勢力

標本調査한 各 階層의 戶當平均 動力船의 數는 모두 1隻으로 同一하고 Ton數와 마력수는 漁船漁業 漁家의 平均이 각각 4.38 Ton, 25마력으로 나타났다(〈表·3〉參照). 여기서 韓國과 日本의 漁船勢力⁷⁾을 比較해 보면 平均 漁船隻數는 각각 1.0隻, 1.1隻으로 保有漁船 隻數에 있어서 거의 差異가 없으며, 平均漁船 Ton數는 각각 4.38Ton, 4.75Ton으로 日本의 漁船勢力이

〈表·3〉 漁船勢力(戶當平均)

區分	隻數 (隻)	Ton數 (ton)	馬力數 (H·P)
平均	1.0 (1.1)	4.38 (4.75)	25.00
1以上~ 3Ton미만	1 (1.0)	2.09 (2.11)	14.03
3以上~ 5Ton미만	1 (1.1)	3.91 (4.29)	21.93
5以上~10Ton미만	1 (1.3)	7.14 (7.86)	39.04

註: ()內的 숫자는 1979年度 日本의 漁船漁業에 대한 숫자

7)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漁業經濟調査報告, 1981, pp. 14~15.

漁家所得分布에 관한 調査研究

韓國에 비하여 약간 優勢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表·3>에 의해 各階層別로 韓·日間の 漁船勢力을 漁船의 隻數와 Ton數의 면에서 對比하여도 역시 各階層에서 모두 日本의 漁船勢力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以下 日本에 관한 資料는 모두 1979年度 基準임을 밝혀둔다.

(2) 漁業從事 世帶員 分布

우리나라의 漁業從事 世帶員의 年齡別 分布는 階層全體의 戶當 平均人口가 男子의 경우 1.93人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年齡別 分布로 보면 30~59歲의 年齡層이 1.13人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15~29歲, 60歲以上の 順으로 각각 0.72人, 0.08人으로 나타났다(<表·4>參照).

한편 女子의 경우는 戶當平均 1.01人이며 이를 다시 年齡別 分布로 보면 男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0~59歲의 年齡層이 0.58人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15~29歲, 60歲以上の 順으로 나타났다.

<表·4> 年齡別 漁業從事 世帶員 分布(戶當平均) (단위: 人)

區 分	總 計	男				女				出他家族	年度初 世帶員
		小 計	15~29歲	30~59歲	60歲以上	小 計	15~29歲	30~59歲	60歲以上		
平 均	2.94 (1.75)	1.93 (1.36)	0.72 (0.19)	1.13 (0.92)	0.08 (0.25)	1.01 (0.39)	0.36 (0.02)	0.58 (0.32)	0.07 (0.05)	0.78 (0.2)	6.2 (4.7)
1톤 이상 ~ 3톤 미만	2.85 (1.57)	1.97 (1.13)	0.79 (0.05)	1.12 (0.78)	0.05 (0.29)	0.83 (0.44)	0.30 (0.03)	0.58 (0.32)	0.00 (0.09)	0.76 (0.24)	6.0 (4.2)
3톤 이상 ~ 5톤 미만	2.83 (1.76)	1.93 (1.37)	0.63 (0.19)	1.18 (0.95)	0.07 (0.23)	0.93 (0.33)	0.39 (0.02)	0.50 (0.35)	0.04 (0.01)	0.75 (0.20)	6.3 (4.8)
5톤 이상 ~ 10톤 미만	3.16 (1.03)	1.88 (1.55)	0.63 (0.31)	1.03 (1.03)	0.12 (0.22)	1.23 (0.34)	0.40 (0.02)	0.63 (0.23)	0.20 (0.04)	0.80 (0.14)	6.2 (5.1)

註: () 내의 숫자는 1979년도 日本의 漁船漁業에 대한 숫자

여기서 男女別·階層別로 漁業從事 世帶員의 分布를 살펴보면 男女 모두 漁船의 規模가 큰 階層일수록 漁業從事 世帶員數도 增加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階層全體의 戶當平均 漁業從事 世帶員數는 2.94人이며, 이를 各階層別로 보면 1~3Ton 미만이 2.85人, 3~5Ton 미만이 2.83人, 5~10Ton 미만이 3.16人으로 漁船 Ton數가 增加함에 따라 漁業從事 世帶員數도 增加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韓·日間の 漁業從事 世帶員을 比較하면 階層 全體의 平均 漁業從事 世帶員이 韓國이 2.94人인데 비해 日本은 1.75人으로 韓國의 戶當平均 漁業從事 世帶員數가 日本에 비해 1.19人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男女別로 比較하면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男女 어느 경우에도 韓國의 戶當平均 漁業從事 世帶員數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韓·日間の 漁業從事 世帶員의 戶當平均 人員을 年齡別 分布로 보면 日本의 경우 男·女 어느 경우에도 30~59歲 年齡層이 가장 많고 다음이 60歲以上, 15~29歲의 年齡層의 順이고 韓國의 경우는 30~59歲, 15~29歲, 60歲以上の 年齡層의 順이다.

이 結果로 부커 韓國은 日本에 비해 60歲以上の 漁業從事者數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戶當平均 出他家族를 보면 韓國의 경우 年度初 世帶員의 12.6%가 外地에 나가 있는 反面

8)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前掲書, pp. 51~52.

日本の 경우는 4.3%로서 韓國의 離家率이 日本의 約 4倍로 나타났다.

다음에 年度初 世帶員의 戶當平均 人員數는 韓國과 日本이 各各 6.2人, 4.7人으로서 이로부터 韓國은 日本에 비해서는 아직 核家族化가 進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漁業收支

1981年度 우리나라 島嶼의 漁船漁家 平均戶當 漁業收支 狀況을 表示한 <表·5>로 부터 戶當平均 漁業所得은 2,513,100원으로 나타났다. 階層別로 漁業所得을 보면 1~3Ton 階層은 2,352,400원, 3~5Ton 階層은 2,576,300원, 5~10Ton 階層은 2,722,400원으로 動力漁船 Ton數가 增加함에 따라 漁業所得도 增加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漁業收入 및 漁業支出도 動力漁船 Ton數가 增加함에 따라 거의 比例的으로 增加함을 <表·5>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表·5> 漁業收支 現況(漁船漁家平均)

(단위 : 千원)

區 分	漁業所得	漁業收入	漁業支出
平 均	2,513.1	7,205.6	4,692.5
1이상~ 3Ton미만	2,352.4	5,251.0	2,898.6
3이상~ 5Ton미만	2,576.3	6,895.8	4,319.5
5이상~10Ton미만	2,722.4	11,480.0	8,757.6

3. 漁家の 所得

1981年度 10Ton미만 動力船을 保有하고 있는 漁家の 1戶當 平均 漁家所得은 2,882,000원 이며, 漁業所得과 漁業外所得의 構成比는 각각 87.2%, 12.8%로 되어 있다(<表·6>參照).

이를 階層別로 보면 1~3Ton 階層, 3~5Ton 階層, 5~10Ton 階層이 각각 2,769,000원, 2,826,700원, 3,188,100원으로 使用漁船 Ton數가 增加함에 따라 戶當平均 漁家所得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6>

漁家の 所得構成(戶當平均)

(단위 : %)

區 分	構 成 比			漁業依存度
	漁 家 所 得	漁 業 所 得	漁 業 外 所 得	
平 均	100 (2,882.0)	87.2 (2,513.1)	12.8 (368.9)	87.2
1이상~ 3Ton미만	100 (2,769.6)	85.0 (2,352.4)	15.0 (417.1)	84.9
3이상~ 5Ton미만	100 (2,826.7)	91.1 (2,576.3)	8.9 (250.4)	91.1
5이상~10Ton미만	100 (3,188.1)	85.4 (2,722.4)	14.6 (465.7)	85.4

註 : ()内の 數値는 實額(단위 : 千원)임.

여기서 각 階層別로 漁家所得중에서 漁業所得이 차지하는 構成比를 比較해 보면, 1~3Ton 階層과 5~10Ton 階層의 漁業所得 構成比가 약 85%로 나타났으며 3~5Ton 階層의 漁業所得이 차지하는 構成比는 약 91%를 占有하고 있다. 따라서 3~5Ton 階層의 漁家は 他階層의 漁家에 비해 漁業

漁家所得分布에 관한 調査研究

依存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表·6〉의 漁業依存度 參照).

한편 〈表·7〉은 韓國과 日本 漁家の 戶當所得 構成分布⁹⁾를 各階層別로 對比한 表이며 〈그림·3〉은 이를 圖表化한 것이다.

〈表·7〉 韓·日 漁家所得 構成分布(戶當平均) (단위: 千원)

區 分	漁 家 所 得		漁 業 所 得		漁 業 外 所 得	
	韓 國	日 本	韓 國	日 本	韓 國	日 本
平 均	2,882.0	8,804.9	2,513.1	4,833.7	368.9	3,970.9
1이상~3Ton미만	2,769.6	8,228.6	2,352.4	4,278.9	417.1	3,949.7
3이상~5Ton미만	2,826.7	10,809.4	2,576.3	6,711.4	250.4	3,598.0
5이상~10Ton미만	3,188.1	12,357.6	2,722.4	8,959.4	465.7	3,398.3

註: 日本의 漁家所得은 1979년 基準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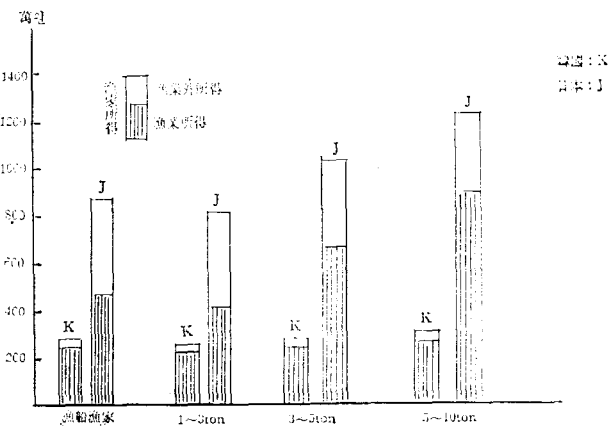
여기서 日本의 各階層別 漁家所得은 1979年度末의 圓貨와 円貨의 換率¹⁰⁾에 의해서 円貨를 圓貨로 換算한 金額이다.

〈그림·3〉으로 부터 韓國의 戶當平均 漁家所得은 日本의 約 3분의 1정도이며 韓國의 경우 日本에 비해 漁業外所得이 極히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韓國의 漁家所得은 使用漁船 Ton數의 增加에 따라서 漸進적으로 增加하는데 反해 日本의 경우는 急激하게 增加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韓國과 日本의 漁家所得중 漁業外所得이 占하는 構成分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韓國의 경우는 1~3Ton 階層 15.1%, 3~5Ton 階層 8.9%, 5~10Ton 階層 14.6%로 나타났으며, 日本의 경우는 각각 48.0%, 34.9%, 27.5%로 되어 있다.

여기서 韓·日間의 漁家所得중 漁業外所得의 構成分를 對比하면 韓國의 경우는 漁船의 規模(Ton數)에 따른 特性이 없는데 反해 日本은 漁船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 그 構成分가 相對적으로 減少되는 現象 즉 漁船의 規模가 增加함에 따라서 漁業依存도가 相對적으로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韓·日間의 漁業外所得을 總括적으로 比較해 보면 韓國은 日本에 비해서 漁家所得중 漁業外所得이 占하는 比重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指摘할 수 있다.

〈그림·8〉 韓國과 日本의 漁家所得構成分分布圖(戶當平均)



9)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前掲書, p. 19.

10) 韓國銀行, 統計月報, 1981, p. 142.

〈表·9〉 可處分所得 現況(戶當平均) (단위:千원)

區 分	收入總額	支出總額	租稅公課金	可處分所得	平 均 100 以 上 의 1 人 當 可 處 分 所 得	1 人 當 家 計 費	平 均 100 以 上 의 1 人 當 家 計 費
平 均	8,017.2	5,135.1	42.5	2,839.5	100	460.0	389.2
1이상~3Ton미만	5,962.8	3,193.21	18.2	2,571.3	90.5	428.6	398.8
3이상~5Ton미만	7,806.9	4,980.2	35.6	2,791.1	98.3	443.0	350.5
5이상~10Ton미만	12,325.5	9,137.4	92.4	3,087.5	108.7	498.0	448.5

다음에 〈表·9〉에 의하면 1981年度 우리나라의 漁船漁家の 戶當平均 收入總額, 支出總額, 租稅公課金 및 可處分所得은 使用漁船 Ton數가 增加함에 따라 增加趨勢를 보여주고 있으나 1人當 年間家計費는 3~5Ton 階層이 제일 낮은 分布를 나타냈다. 이를 다시 1人當 年間 可處分所得중 1人當 年間家計費가 차지하는 百分率 즉 平均消費性向을 換算해 보면 階層平均이 84.6%로서 可處分所得의 거의 大部分이 家計費에 充當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事實로 미루어 볼 때 10Ton 미만의 漁船漁業에 從事하는 家口의 經濟狀況은 어려운 實情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를 各階層別로 보면 1~3Ton 階層이 86.9%, 3~5Ton 階層 79.1%, 5~10Ton 階層이 90.1%로 나타났다. 여기서 3~5Ton 階層이 특히 낮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 階層이 他階層에 비해 1人當 年間家計費의 支出이 相對적으로 낮기 때문이다(〈表·9〉의 平均을 100으로 한 指數參照).

4. 諸指標의 韓·日間 比較

여기서는 이번 調査를 통해 算出한 漁船漁業 從事者の 家口에 대한 主要指標를 日本의 경우¹¹⁾와 對比하여 檢討하기로 한다. 〈表·10〉의 主要指標의 算出方式은 다음과 같다.

- (i) 1人當 可處分所得 = 年間 可處分所得 ÷ 年度初 世帶員數
- (ii) 1人當 家計費 = 年間 家計費 ÷ 年度初 世帶員數
- (iii) 漁業依存度 = 漁業所得 ÷ 漁家所得 × 100
- (iv) 家計費充足率 = 漁業所得 ÷ 家計費 × 100
- (v) 平均消費性向 = 家計費 ÷ 可處分所得 × 100

① 1人當 可處分所得

〈表·10〉으로부터 1人當 可處分所得의 階層平均을 보면 韓國은 460,000원인데 비해 日本은 1,839,300원으로 韓國의 約 4배에 達하고 있다. 한편 이를 各階層別로 보면 漁船 Ton數의 規模가 增加함에 따라서 韓國과 日本 어느 경우에도 1人當 可處分所得은 增加함을 알 수 있으나 韓·日間의 所得隔差의 面에서 보면 漁船 Ton數의 規模가 增加함에 따라 所得隔差가 增加되는 現象을 나타냈다.

11)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前掲書, pp.51~52.

漁家所得分布에 관한 調査研究

<表·10>

分析指標의 韓·日間 比較(戶當平均)

단위 { 實額: 千원
比率: %

區 分	1 人 當 可處分所得		1 人 當 家計費		漁業 依存度 (%)		家計費充足率 (%)		平均消費性向 (%)	
	한 국	일 본	한 국	일 본	한 국	일 본	한 국	일 본	한 국	일 본
平 均	460.0	1,839.3	389.2	1,357.1	87.2	54.9	104.1	82.8	85.0	73.8
1이상~3Ton미만	428.6	1,773.3	398.8	1,376.9	84.9	52.0	98.3	74.0	87.0	77.6
3이상~5Ton미만	443.0	1,939.4	350.5	1,332.9	91.1	65.1	124.8	105.4	79.1	68.7
5이상~10Ton미만	498.0	2,065.6	448.5	1,384.6	85.4	72.5	97.9	126.8	90.1	67.0

② 1人當 家計費

韓國과 日本의 1人當 家計費는 階層平均이 각각 389,200원, 1,357,100원으로 日本의 1人當 家計費는 韓國의 約 3.5배에 達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韓·日間の 1人當 可處分所得의 隔差(日本이 韓國의 約 4배)와 1人當 家計費의 隔差(日本이 韓國의 約 3.5배)가 거의 비슷한 結果로 보아서 韓·日間の 經濟剩餘¹²⁾의 差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에 1人當 家計費를 階層別로 보면 韓國과 日本 어느 경우에나 3~5Ton 階層이 가장 낮고 5~10Ton 階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漁業依存度

韓國의 漁業依存度は 日本에 비해 漁船漁家平均은 勿論 全階層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韓國이 日本의 경우보다 漁家所得에 대한 漁業所得이 相對的으로 많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 같이 韓國의 漁業依存도가 日本보다 월등하게 높은 原因에 대해 考察해 보면, 첫째 韓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調査對象地域이 島嶼라는 特殊한 地域에 局限되어 있어 農業等の 兼業이 沿岸漁村보다 事實上 어렵기 때문에 日本에 비해 漁業外 所得이 相對的으로 적은 데서 비롯된 結果라 할 수 있다(<그림·3>參照).

둘째, 日本의 경우는 漁閉期를 利用한 被用勞賃獲得의 機會와 勞賃金額이 韓國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點을 들 수 있다.

한편 階層別로 韓國과 日本을 比較해 보면 韓國의 漁業依存度は 階層間的 差가 그다지 크지 않으나 日本의 경우는 上位規模階層으로 갈수록 增加되고 있다.

④ 家計費 充足率

家計費 充足率은 家計費中에서 漁業所得이 차지하는 比率을 나타낸 것으로 韓國의 경우는 上位規模의 階層과 下位規模의 階層間에 그다지 差異가 없지만 日本의 경우는 上位規模의 階層일수록 家計費 充足率이 높다. 한편 韓·日間の 階層平均 家計費 充足率은 각각 104.1%, 82.8%로서 韓國이 日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韓國의 경우는 漁家所得의 87.2%가 漁業所得인 反面에 日本은 54.9%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表·10>에서 3~5Ton 階層의 韓國의 家計費 充足率이 124.8%로서 매우 높은 것은 이 階層의 家口의 家計費가 他階層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2) 經濟剩餘 = 可處分所得 - 一家計費.

따라서 家計費充足率의 관점에서 볼 때 韓國의 경우는 3~5Ton 階層의 家口가 他階層의 家口보다 安定的인 生活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⑤ 平均消費性向

平均消費性向은 可處分所得중에서 家計費가 차지하는 比率로서 韓國과 日本 모두 上位規模 階層으로 갈수록 消費性向이 增加되고 있다. 여기서 平均消費性向值로서 韓·日間을 比較해 보면 각각 85.0%, 73.8%로서 韓國의 消費性向이 日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世帶員 1人當 可處分所得과 關聯시켜 考察해 보면 韓國은 可處分所得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消費性向은 높기 때문에 漁家의 貯蓄은 日本에 비해 下落될 것이라 豫想된다.

한편 이를 各階層別로 比較하면 日本은 階層規模가 增加함에 따라 家計費 充足率이 增加한 反面에 平均消費性向은 減少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은 階層規模가 가장 큰 5~10Ton 階層의 平均消費性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韓國과 日本의 平均消費性向의 隔差의 原因에 대해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은 日本에 비해 可處分所得과 家計費의 實額에 있어 모두 적으나 可處分所得의 隔差가 상대적으로 家計費의 隔差보다 크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平均消費性向에 있어 相當한 差를 나타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家計費支出額의 差보다는 可處分所得의 差로 인해 韓國의 平均消費性向이 日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하겠다.

5. 諸指標의 產業間比較

우리나라 既存資料에 의한 漁業¹³⁾과 農業¹⁴⁾의 主要한 經濟指標(1979年度 基準)에 대해 먼저 檢討하고 다음에 本調査의 結果에 대해 考察하기로 한다.

漁業과 農業의 戶當平均 所得面에서 보면 漁業은 農業에 비해 劣勢에 있으나 飲食費의 支出面에서는 農業보다 많은 편이다. 따라서 英鎊係數와 平均消費性向은 農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家計充足率은 漁業이 86.5%이고 農業이 92.1%로서 農業家口가 漁業家口에 비해 經濟적으로 安定된 狀態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主職業依存度에 있어서는 漁業과 農業이 각각 67.4%, 68.7%로서 거의 類似함을 알 수 있다.

〈表·11〉 產業別 分析指標 比較(1979年度 戶當平均) (단위: 千원)

項目別 產業別	①飲食費	②家計費	③可處分所得	④主業所得	⑤家口當所得	英鎊係數 (%) ①÷②×100	平均消費性向(%) ②÷③×100	家計充足率(%) ④÷②×100	主業依存度(%) ④÷⑤×100
漁業	668.3 (984.2)	1,498.0 (2,413.2)	1,877.2 (2,839.5)	1,295.5 (2,513.1)	1,922.9 (2,882.0)	44.6 (40.8)	79.8 (85.0)	86.5 (104.1)	67.4 (87.2)
農業	629.8	1,662.2	2,147.5	1,531.3	2,227.5	37.9	77.4	92.1	68.7

註: ()內는 10Ton 미만의 動力船을 保有하고 있는 島嶼漁家에 대한 1981年度 基準임.

다음에 時系列的으로 약간 差異는 있지만 本調査研究에서 實施한 10Ton 未滿의 動力船을 保有하고 있는 漁船漁業 漁家の 諸指標(1981年度 基準)와 漁業全體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13) 농수산부, 수산통계연보, 1981, pp.199~207.
14) 농수산부, 농업경제 조사결과 보고, 1980, p.55, p.73.

漁家所得分布에 관한 調査研究

영질係數의 面에서는 漁業全體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農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으며 平均消費性向은 漁業全體보다 오히려 增加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家計充足率은 漁業과 農業의 86.5%와 92.1%에 비해 104.1%로 크게 向上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漁業依存度를 보면 漁業全體가 67.4%인데 비해 87.2%로 크게 增加한 것은 標本漁家が 모두 10Ton 미만의 動力船을 保有하는 島嶼地方의 漁船漁業 漁家를 對象으로 하였으므로 相對的으로 漁業所得에 대한 兼業所得의 比率이 낮기 때문이다.

6. 主要指標間의 相關度

本調査에서 實施한 各項目 및 分析指標間의 32個 項目에 대해서 相關係數를 算出하고 그 結果에 대해서 檢討하기로 한다. <表·12>는 各項目間의 相關行列을 나타낸 表로서 紙面關係上 그 一部를 拔萃한 것이다. 各項目別로 相關도가 높은 項目에 대해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① 漁船 Ton數

漁船 Ton數와 가장 相關도가 높은 項目은 漁船 馬力數로 나타났으며 이는 당연한 結果라 생각된다(相關係數 0.859). 다음으로 相關도가 높은 項目은 支出總額 및 漁業支出 그리고 收入總額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漁船의 Ton數가 增減함으로써 支出 및 收入이 增減함을 意味한다.

② 收入總額

收入總額과 가장 相關關係가 큰 項目은 漁業收入으로서 그 相關係數는 0.97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收入總額과 漁業收入의 相關係數가 크게 나타난 것은 10Ton 未滿의 漁船漁業을 營爲하고 있는 家口의 收入이 大部分 漁業收入에 依存하고 있다는 사실을 立證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相關도가 높은 項目은 支出總額 및 漁業支出 그리고 漁家所得順으로 나타났다.

③ 支出總額

支出總額과 漁業支出의 相關係數가 0.974로서 가장 높고 收入總額 및 漁業經營費와도 매우 相關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④ 可處分所得

可處分所得과 漁家所得의 相關係數는 0.999로서 可處分所得과 漁家所得은 比例關係에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또한 漁業所得과도 거의 正相關의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經濟剩餘, 漁業純利益, 家計充足率, 漁業收入, 收入總額과도 相關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의 各項目에 대해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IV. 結 論

以上에서 分析한 內容을 토대로 漁家所得 向上을 위한 對策에 대해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 島嶼의 漁家所得이 낮은 原因중의 하나는 앞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漁業外所得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漁家所得을 農家 및 都市勤勞者 所得水準으로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漁業外所得

수 산 경 영 른 집

<表·12>

相 關 行 列

	漁 船 Ton數	收入總額	支出總額	漁家所得	可處分 所得	經濟剩餘	漁業所得	家計 充足率
漁 業 收 入	0.542	0.971	0.795	0.747	0.738	0.559	0.762	0.492
漁 業 外 事 業 收 入	0.001	0.204	0.249	0.057	0.054	-0.054	-0.169	-0.176
事 業 外 收 入	0.195	0.247	0.237	0.148	0.149	-0.003	0.024	-0.020
漁 業 支 出	0.590	0.811	0.974	0.246	0.232	0.034	0.220	-0.007
漁 業 外 事 業 支 出	0.119	0.251	0.327	0.045	0.042	-0.082	-0.160	-0.148
事 業 外 支 出	0.223	0.332	0.360	0.148	0.147	0.047	0.239	0.064
租 稅 公 課	0.383	0.540	0.556	0.277	0.253	0.137	0.262	0.080
家 計 費	0.330	0.470	0.455	0.276	0.271	-0.204	0.194	-0.227
漁 業 經 營 費	0.426	0.650	0.792	0.183	0.173	0.032	0.195	-0.021
飲 食 費	0.159	0.323	0.302	0.202	0.201	0.015	0.150	-0.121
世 帶 員 數	0.099	0.095	0.007	0.161	0.162	0.131	0.148	0.056
出 他 家 族	0.063	-0.034	-0.037	-0.015	-0.015	-0.061	-0.013	-0.071
15~29 才 男 子 數	-0.045	0.087	-0.033	0.194	0.199	0.180	0.138	0.115
30~59 才 男 子 數	-0.032	-0.025	-0.029	-0.008	-0.007	-0.018	0.001	-0.031
60 才 以 上 男 子 數	0.057	0.185	-0.067	0.411	0.412	0.367	0.414	0.365
15~29 才 女 子 數	0.023	0.118	0.072	0.121	0.122	0.011	0.050	0.002
30~59 才 女 子 數	0.005	-0.043	-0.195	0.161	0.167	0.125	0.132	0.132
60 才 以 上 女 子 數	0.332	0.074	0.086	0.025	0.025	-0.024	0.007	-0.051
漁 船 Ton數	1.000	0.548	0.600	0.236	0.228	0.073	0.244	0.063
漁 船 噸 數	0.859	0.587	0.663	0.229	0.220	0.055	0.197	0.054
收 入 總 額	0.548	1.000	0.837	0.746	0.737	0.523	0.702	0.436
支 出 總 額	0.600	0.837	1.000	0.261	0.249	0.034	0.241	-0.005
漁 家 所 得	0.236	0.746	0.261	1.000	0.999	0.884	0.948	0.778
可 處 分 所 得	0.228	0.737	0.249	0.999	1.000	0.886	0.948	0.782
經 濟 剩 餘	0.073	0.523	0.034	0.884	0.886	1.000	0.871	0.905
漁 業 所 得	0.244	0.702	0.241	0.948	0.948	0.871	1.000	0.807
漁 業 純 利 益	0.273	0.605	0.228	0.792	0.791	0.700	0.799	0.687
1 人 當 家 計 費	0.264	0.385	0.394	0.200	0.196	-0.225	0.121	-0.237
平 均 消 費 性 向	-0.197	-0.242	-0.237	-0.139	-0.136	0.123	-0.089	0.139
家 計 充 足 率	0.071	-0.231	-0.020	-0.384	-0.385	-0.553	-0.386	-0.449
漁 業 依 存 度	0.063	0.436	-0.005	0.778	0.782	0.905	0.807	1.000
漁 業 依 存 度	0.084	0.000	0.008	-0.011	-0.010	0.082	0.249	0.227

漁家所得分布에 關한 調查研究

向上을 위한 對策이 時急하다.

(2) 韓·日의 漁業從事 世帶員數와 그 所得分布 比較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韓國의 경우 日本에 비해 漁業生産性이 크게 低下되어 있는데 이의 原因구명과 더불어 그 解決策이 講究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韓·日의 世帶員 1人當 可處分所得과 平均消費性向間의 關係에서 韓國은 日本에 비해 世帶員 1人當 可處分所得이 크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高水準의 消費性向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高水準의 消費性向의 要因을 分析하여 貯蓄率 增加를 위한 對策을 講究해야만 한다.

(4) 漁業經營體의 所得向上을 위한 보다 積極的인 水産行政의 基礎資料가 作成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昭和 54年 漁業經濟調查報告, 1981, pp.14~21, pp.50~55.
2. 한국은행, 統計月報, 1981, p.142.
3. 內務部, 島嶼·落島現況, 1981, p.11.
4. 水産社, 水産年鑑, 1981, pp.336~339.
5.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주요경제指標, 1981, p.15, p.67, p.179.
6.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1981, p.42.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 제통판매고 통계연보, 1981, pp.54~71.
8. 農水産部, 농업경제 조사결과보고, 1980, p.55.
9. 全라남도島嶼開發擔當官室, 道政白書, 1981, p.12.

Summary

Survey on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shing Households in Korea

Kang-Woo Lee

This paper first makes a survey of fishing household economy which possess fishing boats under 10 gross Tons by a questionnaire, and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major indicators of fishing household econom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finally suggests some policies for the fisheries management. Major indicators are the status of fishery household members, number of fishing boats which possess, fisheries incomes, fishing household incomes, side business incomes of fishing household, disposal incomes, living expenses, sufficient degree of living cost,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and so on.

Some policies for improvement in fishing household incomes are suggested in the paper as follows:

- (1) Form a policy similar to a project aiming for increasing the income of fishermen so that the side business income will also increase.
- (2) The point of view in tracing origin of low productivity.
- (3) It has drawn up a plan to encourage saving after analyzing the cause of high propensity to consumption.
- (4) The paper is aimed to collect basic statistical materials for fisheries administration.